

이소하마 고분군

국가 지정 사적

이소하마 고분군은 2020년 3월 1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소하마 고분군은 3세기 후반~4세기대 고분 시대 전기~중기 초에 만들어진 권력을 가진 수장들의 무덤입니다. 태평양을 마주한 400미터 사방의 독립된 고지대에 전개되어 총 6기로 구성됩니다.

히메즈카 고분(전기 전반, 길이 29m 전방후원분)은 이바라키현 북부 아요이 사치 안에 들어온 가장 오래된 시기의 고분입니다.

고혼마쓰, 고혼마쓰시타 고분은 분구 부분이 깎여져서 실태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보치노야마 고분(전기 후반, 60m급 전방후원분)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하니와(토옹)를 가진 고분입니다.

히사게즈카 고분(전기 말엽, 길이 101m 전방후원분)은 후원부 중앙에서 점토락이 발견되었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석제모조품과 거울 등 4,000점의 부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루마즈카 고분(중기 초 직경 88m의 원분)은 전국 유수의 대형 원분입니다. 전면에 돌이 얹혀 있고, 3단 테라스 위에는 나팔형 원통 하니와(토옹)가 늘어져 있습니다.

당시 최신 고분 형태를 채택하여 매장시설과 부장품, 춤서와 하니와(토옹) 등에 아마토 왕권과의 연결고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나카가와 하구부의 수운 거점을 확보해

사물의 유통 네트워크를 장악했던 역대 수장 상이 떠오릅니다.

히사게즈카 고분 일체는 에도시대 후기에는 이선(異船)을 감시한 미토번의 이소하마 해방 감시원으로서 이용되었습니다.



이소하마 고분군의 문명은 오이타이초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문화재계 ☎ 029-267-0230



- 히메즈카 고분
- 고혼마쓰 고분
- 고혼마쓰시타 고분
- 보치노야마 고분
- 히사게즈카 고분
- 구루마즈카 고분